

# 35 개국 특파원의 지구촌

## 생생 리포트

60억 명이 공존하는 지구에서는 시시각각 다종다양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중에는 이 역만리까지 알려지는 뉴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가까운 중국과 일본에서부터 멀리는 브라질 상파울루까지 35개국 46개 지역에 상주하는 특파원과 통신원 60여 명의 광범위한 해외 취재망을 바탕으로 다채로운 기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지구촌을 누빈 특파원들의 소식을 전합니다.

### SRI LANKA



### SWITZERLAND



### ARGENTINA

#### ◀ 삼성전자, 내전 끝난 스리랑카 공략

삼성전자가 오랜 내전에 증지부를 찍고 경제발전의 시동을 건 스리랑카 공략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5월 31일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3D LED TV 론칭을 겸한 사업 계획 발표회를 열었다. 스리랑카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천53달러로 남아시아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콜롬보 김상훈 특파원**

#### ◀ 스위스, 지난겨울 관광객 소폭 증가

스위스의 관광산업이 지난겨울 호황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 통계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스위스를 찾은 관광객 수가 1년 전에 비해 0.5% 증가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세계 금융 불안정 속에서도 관광객이 늘어난 것은 스위스 관광의 경쟁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제네바 맹찬형 특파원**

#### ▲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등장한 마라도나

축구 강국 아르헨티나의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남아공 월드컵의 열기로 뜨겁다. 중심가에는 대표팀 감독을 맡고 있는 마라도나 대형 풍선이 등장하기도 했다. 경기가 펼쳐지는 날이면 시내에는 아르헨티나 국기를 단 차량들이 줄을 이었고, 흰색과 하늘색이 섞인 각종 응원도구들도 눈에 띄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고미혜 특파원**





**NEW ZEALAND**

◀ 뉴질랜드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는 어디일까

오클랜드와 웰링턴이 세계 각지에서 발표한 살기 좋은 도시 순위에서 1승 1패를 기록했다. 오클랜드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도시이고, 웰링턴은 수도이다. 오클랜드 고향성 통신원

**U.A.E.**

▼ 최고층 건물 '부르즈 칼리파'의 셋방은 얼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의 첫 임대 매물이 두바이 부동산 중개업소에 나왔다. 현지 업계에 따르면 원룸의 연간 임대료는 6천만~8천6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바이 강중구 특파원



**AUSTRALIA**



**FRANCE**



◀ 호주 멸종위기 동물 잇단 도난

호주 시드니의 동물원에서 멸종위기 동물의 도난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범인들이 밀매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시드니 이경욱 특파원

◀ 영화 '시' 칸 영화제 각본상 수상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가 제63회 칸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수상했다. 이 감독은 2007년 '밀양'으로 전도연에게 여우주연상의 영광을 안긴 바 있다. 파리 이명조 특파원

(EPA=연합뉴스)